

미국서 태권도 성지 무주 각인 장수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로

학생태권도 시범단원들,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초청 받고 다양한 시범 선보여

무주군 학생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지난 6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유타 등지를 돌며 태권도 명성,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 태권도 성지의 위엄을 확실히 보여주고 돌아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위원회 초청을 받고 4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13일까지 '브리검영대학 태권도 홍보 게릴라 공연'을 비롯한 '한인민 120주년 기념 북가주 태권도인의 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한국 문화의 밤' 등에서 품새와 격파, 태권체조 등 다양한 시범을 선보였다.

시범 무대를 관람한 현지인들은 "역시 대한민국 태권도"라며 "행사장을 뒤훑던 어린 학생들의 우렁찬 기합소리와 절도 있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단원들은 공식 시범 일정 이외 시간에도 방문 지역의 태권도 도장을 방문해 현지인들과 함께 수련하며 훈련을 하는 등 견문을 넓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6일 총영사 주최 미주한인민 120주년 기념 북가주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서 조지아센터, 실리콘밸리 태권도협회(회장 최창익)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협약을 통해 이들은 스타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활동에 협력할 것, 스타태권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무주군은 지난 6일 총영사 주최 미주한인민 120주년 기념 북가주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서 조지아센터, 실리콘밸리 태권도협회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 협력하고 기타 스타태권도 발전과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문화사업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7일과 8일에는 북가주 태권도인의 밤과 LA 태권도단체 간담회 등지에서 무주군에 조성 중인 태권마을과 설립 추진 중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홍보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마을(2024년 상반기 진입도로까지 준공 예정, 하반기 입주자 예정자 모집 공고)은 해외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정주공간으로 태권도원 인근에 거주 주택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태권도 수련 교육시설, 힐링 체험 시설)

을 조성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원 대학 형태로 현재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용역을 진행 중(태권도진흥재단)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무주군 학생태권도 시범단(총감독 이도우)은 지난 2007년도에 발족해 국내외를 무대로 태권도와 태권도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알리고 있으며 실천고 3학년 이도운 학생을 비롯해 무주군 관내 학생 1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열고 다양한 의견 나눠

장수군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동브랜드 표지 및 포장재 디자인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공동브랜드를 직접 사용하게 될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장수농협장, 장계농협장,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장수사과원에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발한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장수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기적 관점의 농산물 브랜드를 고려한 것으로 유통주체, 농가, 장수군민 및 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표지 네이밍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표지 네이밍은 '장수가꿈'으로 '장수에서 직접 가졌다'는 의미와 '장수하는 것이 꿈'이라는 동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군은 이번 최종 선정된 표지 네이밍과 디자인을 종합해 오는 11월~12월 경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브랜드 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농가 및 단체에서 사용하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한 새롭게 개발된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를 통해 군 이미지를 향상하고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장수군 농특산물을 전국 및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농가 및 단체에서 사용하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한 새롭게 개발된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를 통해 군 이미지를 향상하고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장수군 농특산물을 전국 및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파상풍 유류 예방접종 실시

장수군은 16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둔 18세(2003년 이전 출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파상풍 유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상처 부위에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인면 및 전신 경련을 유발하고 사망률이 높아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보건 의료원은 맨발걷기 시 파상풍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파상풍은 일반적으로 녹스 못에 찢리거나 동물에 물린면 감염되고 알려져 있으나 파상풍균은 흙이나 모래 등에도 분포해 있을 수 있어 맨발 걷기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성인은 Tdap 백신 또는 Td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1968년(국내 DTP 도입 시기) 이전 출생자는 3회 접종이 권장된다.

접종 비용은 Tdap의 경우 22,000원, Td의 경우 13,000원이며, 보건 의료원 및 5개면 보건지소에서 접종 가능하고 방문 시 장수군민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지소별 접종 시작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독감 접종 접종 기간과 겹칠 수 있어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제4회 산서희망 무지개축제 성황리 개최

산서희망무지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술)가 4회째 이어진 산서희망무지개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산서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산서희망무지개축제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용근 도의원, 이종섭 장수군의원, 관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숙품, 플라마켓 등 마을공동체부스 운영, 동아리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천 하천정화 EM흡공 던지기 행사 열려

진안군은 지난 13일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진안천 일대에서 EM흡공 던지기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용담호 공역상수원 지킴이' 42명과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용담호 유입하천인 진안천이 더욱 맑고 깨끗해질 것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1,000여개의 흡공 투하하고 함께 진안천 주변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흡공은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흡공과 질 좋은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하천에 던지면 공이 분해되면서 약취제거 및 정화기능 등 수질개선 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EM흡공 던지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맑은 용담호를 위해 수질개선 활동을 지속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결과보고회 가저

진안군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군청 강당에서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은 올해 4월 13개의 참가팀(창업팀 8, 성장팀 5)을 선정해 6개월간 각 팀 역량 및 사업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 등을 통해 예비 창업팀들의 사업설계 방안 등 사업기반 구축을 돕고 기존 법인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진단과 판로개척 등을 도왔다.

결과보고회는 창업·성장팀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농산촌 창업 생태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돼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이미옥 군의회 부의장, 산림청 이명규 팀장,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명재 센터장, 13개 참여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참여팀 활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참여팀별 5분간 성과발표를 했으며 참여팀(3곳)에서 사업성과물인 산골도시락, 새싹삼 떡갈비, 면역향상 소시지를 오찬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참여팀들의 사업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참여팀별 부스를 설치해 사업성과를 전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학 연구·진흥계획 수립 위한 학술대회 개최

무주학 연구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13일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 다목적 영상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학 연구의 발전취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무주학연구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 한문중 교수가 "지역학과 무주학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기초 발제를 했으며 전북대 무주학연구소 박대걸 연구위원이 "무주 관련 연구 현황과 제언", 전북대 박정민 교수가 "무주학의 추진 체계와 방안"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전주대 이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무주 적상중학교 김만호 교장과 원광대 임진순 교수, 충남여사 문화연구원 문광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주군의 자원을 발굴, 관리, 보호하는 기반이자 공동체 강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무주군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무주군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 여정이 곧 진정한 무주다움을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학술대회가 무주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학문적인 연구, 그리고 지식공유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군에서 진행 중인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 2024년 10월 까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 동력 구축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